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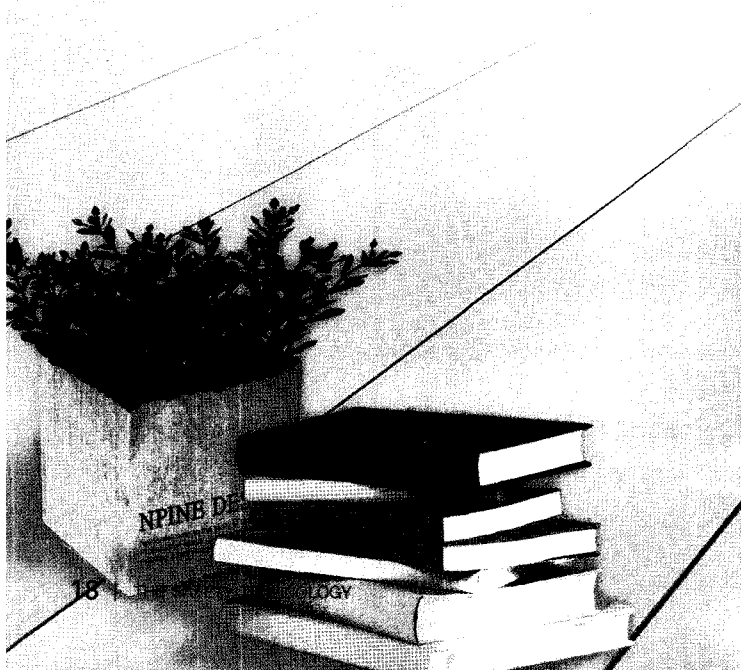
운동을 통해 안전도 통한다



삶의 안전과 건강을 추구하는 기업인 제약회사에서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 18년간 안전업무에 몰두해온 사람이 있었다. 창의적인 업무로 '통하는 안전'을 하고 있는 그는 사람이 나태한 마음을 가질 때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다. SK케미칼 안산공장의 신교설 과장을 만나 '신교설식 안전관리'에 대해 들어봤다.

SK케미칼 안산공장 신교 설과장

취재 · 사진 | 최종덕 기자(safeeng@safety.or.kr)



외길 18년 안전업무에 몰입

20년에서 2년이 모라자는 세월동안 한 우물만 봤다면 그는 해당분야에 있어 달인일 것이다. 오늘 만난 신교설 과장 역시 18년의 세월동안 관리분야에 외길을 걸어온 달인이다. 공무 Utility에서부터 위험물 관리, 방화관리,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거치지 않은 일이 없는 그는 안전공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방화관리와 위험물 관리를 하면서 산업안전에 대해 심취하게 되었다.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본격적인 안전관리자로서 길을 걸어왔다.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처음부터 산업안전 대한 의식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좋은 기업, 신바람나는 기업이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외길을 걸어왔다.

이런 그를 두고 지금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안전 달인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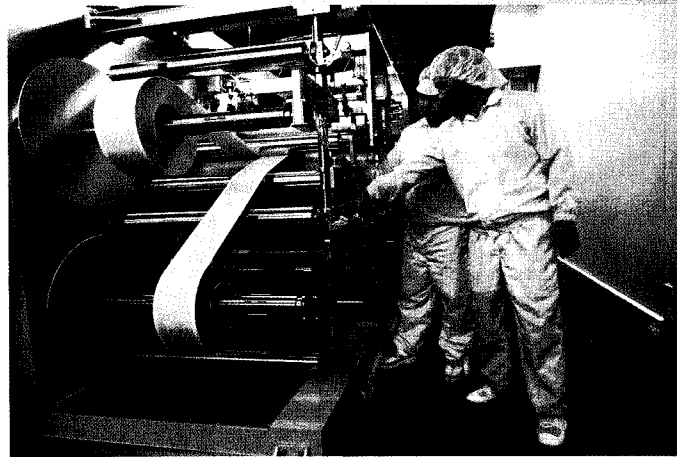
신 과장만의 통하는 안전

신교설 과장은 축구면 축구, 탁구면 탁구 못하는 운동이 없고 싫어하는 운동이 없다. 운동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그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신 과장은 안산공장의 레포츠 담당자는 아니다. 분명 그는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이지만 운동을 좋아한다.

“안전의 주체는 근로자들이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관리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동료로서 가족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 회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신과장의 안전관리란 인간관계로 보면된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면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자율적이고 상호 협조하는 안전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가장 최고의 수단이 바로 몸을 부딪기며 마음을 통하는 운동이다. 또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그 어떤 안전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도 쉽고 오래 유지될 수 있어 '신교설식 통하는 안전'으로 이곳에서는 통한다.



예방 가능한 재해

하인리히 이론에서 300건의 아차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중 29건은 경미한 사고로 이어지고 1건은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가설이 있다. 이 이론에 대해 신 과장도 공감을 한다. 그래서 아차사고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것도 이런 이론적 배경이 있는 것이고 아차사고가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안산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아차사고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원인 분석에서 재발방지까지 신 과장의 몫이다.

그래도 신 과장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예전 같으면 업무상 재해만 방지해도 무재해를 달성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업무 외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다쳐도 재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제약사라는 특성으로 모든 기계가 각기 다른 룬으로 관리하고 있고 가동 중에 출입이 제한되는 잠금장치가 철저한 상황임에도 예기치 않은 곳에서 어떠한 형태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 무재해 2배수인 535일 진행되고 있지만 그는 무재해 달성에 연연하지 않는다. 본연의 업무인 재해예방에만 집중하면 무재해는 당연히 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사고를 달성하기 위해

신 과장의 단기적인 목표는 금년 무사고다. 유기용제 작업장에서의 가스폭발 사고와 왕복운동을 하며 근로자의 손가락을 잡아 삼킬 것 같은 환경이지만 위험성 평가와 철저한 잠금장치 사용 그리고 안전교육과 점검을 통해 신과장은 이 모든 위험요소에 한치의 허점도 내주지 않았다.

2년 후면 청주로 이전을 하게되지만 이전하는 그 순간까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75명 모두가 단한명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 과장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 신 과장은 그 어떤 이유나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무조건 결과만 보지 않는다. 신교설 과장은 오늘도 내일도 '신교설식 통하는 안전'으로 목표를 함께 이루어 간다. ☺

